

TECHCROSS NEWS

www.techcross.com

Providing Right Solutions For Your Ships

2020 March Edition. Issue. 21

Copyright@TECHCROSS all rights reserved.

News 01. 코로나19 사태에 자구책 강구



작년 12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시끄럽다. 국내에서는 1월 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급속한 속도로 감염이 퍼져 3월 현재, 의료, 보건 분야의 난항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차단되면서 경제활동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신년이 시작되고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거래처와 교류가 단절되어 각 업체마다 비상이 걸린 것이다.

(주)테크크로스 역시 전세계 각지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 및 기술 서비스 인력의 해외 출장이 필수적이거나, 금번 사태로 인하여 고객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 가능한 한 현지 지사 및 파트너사 인력을 활용하고 입국거부 및 제한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본사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형태로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태 이전과 같은 서비스 대응은 당분간 힘들겠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타의에 의한 제재로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한시라도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한편, (주)테크크로스 본사에서 지역 사회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해당 기간 출장자 및 노약자에게는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여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감염에 가장 취약한 식사시간에 최대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식당 운영 시간 연장과 좌석 배치를 변경하는 등 각종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3월 10일에는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그룹차원에서 피해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살균소독기를 포함한 1억 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테크크로스 임직원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News 02. 국내 최대 규모 BWMS 계약 성사

(주)테크크로스는 역대 최대 규모의 ECS 설치 계약을 시작으로 2020년도 영업 포문을 열었다. 국내 메이저 초중량 화물 운송 선사인 (주)티피아이메가라인(서울시 금천구 소재)이 보유 중인 국내 최대 사이즈의 초대형 반잠수식 중량물 운반선(Semi-submersible Heavy Transport Vessel)에 탑재할 BWMS로 (주)테크크로스의 ECS가 선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28일 서울에 소재한 고객사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계약 체결식을 진행하였다.

본 선박은 41K 사이즈로 밸러스트 펌프용량이 3,000톤X8세트나 된다. 여기에 ECS 3000 모델 6세트를 설치하여 밸러스팅과 디밸러스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 용량은 국내에서 설치하는 BWMS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주)테크크로스 영업 관계자는, 과거 당사에서 세계 최초로 VLCC에 BWMS를 납품한 것을 시작으로 대형선박에 설치 경험이 다수 있었던 것이 이번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상기 건 외에도 2월 기준, 국내 약 50여 척의 계약이 성사되었으며, 해외에서도 기존선을 중심으로 선대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소재의 선사와 맺은 25척의 선대 계약은 2019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순차적으로 10척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또 다른 영국 선사로부터도 900톤에서 3000톤까지 이르는 대형 선박 7척에 대한 설치 계약을 성사한 데에다가 향후 추가 발주가 예상되고 있다. 그 외에도 그리스 선주로부터 기존선 16척의 선대 계약, 러시아 선주로부터도 20척 규모의 LNG선 계약을 따내는 등 크고 작은 계약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이 시작되고 이제 막 2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무려 500억 원에 가까운 수주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주)테크크로스는, 금년도 말까지 3,500억 원의 매출 목표로 활발하게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Providing Right Solutions For Your Ships

News 03. 신제품 ECS-HYCHLOR, DNV-GL 및 KR 형식승인 획득

(주)테크크로스의 간접식 전기분해 방식의 BWMS 신제품 ECS-HYCHLOR가 2월 10일 노르웨이 선급인 DNV-GL, 3월 5일 한국 선급인 KR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았다. 해당 승인은 300 ~ 8,000톤에 이르는 ECS-HYCHLOR의 전체 용량 및 비방폭, 방폭 타입 전반에 해당하며, 선급의 기준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부터 적용되는 IMO BWMS Code 기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ECS-HYCHLOR의 USCG 형식승인도 이미 1월 13일부로 신청 등재되어 최종검토(Under Review) 단계에 있다. 기존의 직접식 전기분해 방식인 ECS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ECS-HYCHLOR의 성능 및 환경 영향성에 대한 모든 시험과 서류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기에 USCG 형식승인 역시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테크크로스는 금번 ECS-HYCHLOR 노르웨이 정부 형식승인을 시작으로, 타 국가 형식승인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선주 선호도 및 선박의 특성에 따라 2가지 형태의 전기분해 제품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시장 리더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News 04. 국내 트레이닝 센터 1곳 추가 개소



약 500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에서 2004년 제정된 규제로 새로 개발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비교적 그 사용 기간이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이 낯선 제품의 작동 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여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테크크로스는 장비의 오작동 및 실수로 인한 AS 요청이 의외로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일찍부터 선원 교육을 위한 시설 투자에 힘을 쏟았다. 그 노력의 결과, 한국, 중국, 인도, 필리핀 4개 국가에 실제 ECS

가 설치된 트레이닝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공장의 트레이닝 센터뿐만 아니라, 이번에 한국해양대학교에도 트레이닝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는 해운, 해양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곳으로 이 곳의 산학연ETRS센터에게 산학협력 차원에서 (주)테크크로스의 ECS를 기증하였다. 기증한 제품은 ECS 300톤 모델 1세트로, 해양대학교 측에서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실습실을 별도로 짓는 등 이번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공간은 재학생 및 관계자들이 실제 장비를 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당초 3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으나, 언젠가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WE ARE BWMS

TOTAL SOLUTIONS PROVIDER


PRODUCT


ENGINEERING


MANPOWER


A/S SERVICE


PRODUCTIVITY



www.techcross.com

Providing Right Solutions For Your Ships

News 05. (주)테크크로스, BWMS 설치 솔루션에 대한 특허권 획득

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소송으로 대표되는 것과 같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1995년부터 특허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80년대 이후 제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기업 혹은 국가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자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여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허로 대표되는 지적재산권은 절대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다. 만약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패하게 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비롯하여 매출 감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하여 기업 피해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 발달되고 경쟁이 심화될 수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연의 사건에 대비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6일 (주)테크크로스는 미츠비시조선주식회사(Mitsubishi Shipbuilding Co., Ltd.) 및 주식회사히타치제작소(Hitachi, Ltd.)로부터 다양한 선종에 적용할 수 있는 BWMS 설치 솔루션에 대한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 늦어도 4월까지 각 국가별로 행정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허 적용 범위는 조선 강국인 한국, 중국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에 이른다.



본 특허는 2011년 등록된 것으로, 선종 및 제품의 처리 방식에 상관없이 선박 내 적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선박 구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본 솔루션은 직/간접식 전기분해방식 제품의 설치 위치와 UV 및 전기분해식 제품의 배관 구조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설치 솔루션으로, BWMS를 선박 후방의 조타기실에 설치하도록 하여, 선박 내의 공간을 유효하게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선체 구조나 선형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신조선 및 기존선을 가리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0년 현재, BWMS 관련 기술 및 설치 솔루션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을 115건 보유하고 있는 (주)테크크로스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면서 만약을 위한 고객 안심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이번에 진행된 특허 양수 작업은, (주)테크크로스의 제품을 설치하는 모든 고객들이 국제법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제품 솔루션을 제공받도록 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같은 불안 요소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다. 향후 4~5년 간 선박평형수 산업은 경쟁이 극도로 심화될 것이고, 이로 인한 많은 피로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 고객 사업 번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적재산권 준비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를 비롯하여 업계 최대 규모의 생산공장 및 트레이닝 센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과 같은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박평형수 사업에 임하는 (주)테크크로스의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019년 매출은 전년 대비 230% 성장한 1,800억 원을 달성하였고, 올해는 그 2배에 달하는 3,500억 원을 매출 목표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TEHCROSS

Total Solution Provider

TEHCROSS provides BWMS total solution with safer, simpler and more varied & economical options and leads our clients to the best service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